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3. 6.(금) 9시

국내 청년 33명, 12개국 동포 기업에서 해외 경력 쌓는다!

- 재외동포청, 해외 동포 기업에 인턴 파견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.
 - 「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」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.
 -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, 마케팅, 디자인,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.
 -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지난달 4일 최종 선발됐으며, 3월 3일(화)부터 3월 6일(금)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.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.
-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(만 25세)씨는 “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되었다”면서, “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이번 인턴십이 국내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동포 기업인들도 한상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- 한편, 재외동포청은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인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, 지금까지 약 750명의 국내 청년이 해외 동포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경아 (032-585-3220)
		담당자	주무관 안민지 (032-585-3226)

